

◆ 교회목표 ◆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우기전 편집국장:조선근

예수사랑 큰잔치

6월 5일~7월 3일까지 전도대상자 접촉하고 '그리스도의 편지' (씨앗편) 모두 보내고 초청키로

금년도 예수사랑 큰잔치는 지난해에 실시했던 그리스도의 편지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지난 6월 8일(수) 6월 정기당회에서 94년도 예수사랑 큰잔치 기본계획과 일부 세부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10월 16일을 정점으로 하는 예수사랑 큰잔치가 시작됐다.

예수사랑 큰잔치는 각자 거주지 주변의 주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에 등록은 되어 있으나 장기결석자, 가족·친지 중에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평소에 전도하려고 마음먹은 사람(태신자)를 대상으로 하여 각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끝까지 발송한 후 그들을 초청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며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6월 5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전도대상자(태신자)를 접촉하여 그들의 상태를 확인한 후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내도록 되어 있다. 제1신의 발송은 7월 10일(주일)로 하고 매주 발송하는 경우 9월 25일까지 씨앗편지 12신을 모두 발송하고 10월 2일(주일)과 10월 9일(주일)에 초청장을 발송하고 10월 16일 예수사랑 큰잔치를 베풀 예정이다.

'94 예수사랑 큰잔치의 목표는 당일전체 동원 30,000명, 결신자 6,000명, 등록자 3,000명, 양육자(정착자) 2,000명(이는 등록후 6개월까지 출석자)으로 등록후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에 출석키 위해 양육에 큰

비중을 두고 실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양분과에서는 이미 계획을 끝내고 준비,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앞으로 예수사랑 큰잔치는 전도·양육 운동으로 자리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충현동산

이장 및 매장 관련 규정개정

지난 6월 8일(수)에 모였던 6월 정기당회에서는 충현동산 이장 및 매장관리 규정을 개정하였다. 예배위원회 운영규정 중 예식지침 2항의 장례예식 중 마·4항 '충현동산 묘지사용 자격'에 관한 것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현행〉

4) 충현동산 묘지 사용 자격은 다음 규정에 준한다.

가) 전 가족이 등록한 경우 교인이 세례교

인으로서는 본 교회 등록 후 출석한지 6개월 이상된 자

나) 개인(교인)이 등록한 경우 세례교인으로서는 본 교회 등록 후 출석한지 1년 이상된 자. 단, 교회가 인정하거나 군복무, 해외출장 등으로 인한 경우는 사안에 따라 허락할 수 있다.

〈변경〉

4) 충현동산 묘지 사용 자격은 다음 규정에 준한다.

가) 전 가족이 등록한 경우 교인이 세례교

만도린 단원 모집

6월 23일(목), 나사렛홀에서

크로마하프·만도린 연주단은 보다 좋은 연주를 위해 단원을 모집한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연주하고 있는 크로마하프·만도린 연주단은 1988년 12월에 창단되어 현재 약 40여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연주는 매달 1회씩 주일 저녁찬양예배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며 연습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까지 한다. 지도는 이기숙 선생, 지휘 송문영 선생이다.

현재 크로마하프단은 기초반을 모집하여 연습중에 있는데 이번에는 만도린 연주대원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는 대장 홍명순 권사(542-6140)나 지휘 송문영 집사(542-4369)에게 하면 된다.

희망자는 6월 23일(목), 오전 11시에 나사렛홀로 가면 된다. 입단 자격은 음악을 좋아하는 세례받은 여성이면 된다.

인으로써 본 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한지 6개월 이상되고 세례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자

나) 개인(교인)만 등록한 경우 교인이 세례교인으로서는 본 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한지 1년 이상되고 세례 받은지 1년이 지난 자

다) 충현동산이 조성되기 전에 별세한 자의 이장은 불허한다.

라) 본 교회에 등록교인으로서는 충현동산 묘지사용에 적합한 자격을 소지한 자였으나 6개월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엔 그 자격에서 제외한다.

마) 당회가 인정할 경우엔 묘지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이 사람을 만나보니

효부상(孝婦償) 받은 박갑례 권사

42년동안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셔

동 주민들이 추천하여 효부상 받아

지난 5월 가정의 달이 끝나가는 어느날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보도된 자식이 부모를 끔찍하게 살해한 일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모두가 가정과 부모공경을 이야기하는 가정의 달을 생각하며 밝고 화창한 5월이 무색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늘 그런 끔찍한 일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아름답고 알리고 싶은 일들이 더 많은 법이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효부상을 받은 박갑례 권사(제13교구, 권사회 4지회 지회장)를 만나 보았다.



▶ 축하합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경위를 말씀해 주시지요.

▷ 글썽, 별로 잘한 일도 없고 알리고 싶지도 않은 일인데..... 저희 남편이 외아들이지요. 그래서 결혼해서부터 시어머니(조복례 집사, 89세, 소망부)를 모셨는데 42년이 되었습니

다. 저희 시어머니는 신앙이 좋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동네 나가서 머느리 자랑도 하고 하다보니까 동(洞)에서 추천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귀한 상을 받으니까 기쁘고 좋지만 사실은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박권사는 시어머니 뿐만 아니라 당숙의 어머니도 모셨고 85세되는 친정어머니도 모셨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세 분의 나이도 신 어른들을 모시기도 했다. 동네 어른들 간에는 이런 일들이 늘 화제가 됐고 모이면 칭찬이 자자했다. 5월 8일 어버이날 동네(도선동) 경로잔치에서 성동구청장이 참석하여 박권사에게 효부상(孝婦償)을 주고 상금을 주고 갔다. 상금은 경로잔치하는데 다 썼지만 온 식구들이 모여 축하해 주고 함께 기뻐하였다.

▶ 42년간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등을 모시자면 어려운 점도 많았을텐데요.

▷ 세 분을 함께 모실 때도 있었는데 다른 어려움보다는 신앙적인 것이었지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을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계셨기에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그런데 친정 어머니와 당숙의 어머니는 믿지 않았기에 우상숭배와 반대 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전도해야겠다고 생각하니 더욱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온 식구가 다 교회에 나옵니다. 저희 친정은 말할 것도 없고 주위에 온 친척이 다 나옵니다. 그것이 제일 감사하고 보람이 있습니

다.

결혼 초에는 시어머니와 매우 다투었다. 서로 고집이 세고 성격이 급했기에 매사가 충돌되고 그러다보니 갈등이 쌓이고 미움이 쌓였다. 시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어려움은 지속됐다. 생각하던 중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

금식, 철야를 반복하며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어 달리자 어느날부터 시어머니가 불쌍해지기 시작했고, 인내하게 되고 미운 마음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성으로, 지성으로 모시기 시작했다. 자연히 주위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양남구 집사와의 사이에 3남 2녀를 두었다. 결혼한 자녀들은 모두 처소에서 교회 생활을 잘하며 지내고 막내 아들과 남포교회 전도사로 있는 막내딸과 함께 다섯 식구가 살고 있다. 불신가정에서 사립에서 주님을 믿게 됐고 이제는 친정의 모든 형제, 친척이 다 박권사의 전도로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며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박권사의 얼굴엔 감사와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다(형).

▶ 6·25 44돌을 앞두고

6·25의 성경적 의미

신 성 종

<목사·당회장>



우리 나라의 5000년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수난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받았고, 고려시대에는 몽고의 침략으로 수난을 당했다. 또 조선시대에는 청나라와 일본의 침략을 받았다. 특별히 선조 때에는 임진왜란이 있었고, 1910년 나라를 잃은 후부터는 일제 밑에서 36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6·25때에는 북괴의 남침으로 부산 앞바다의 물고기밥이 될 뻔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우리 나라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수난의 역사를 반복하여 왔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간에 6·25 44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을 성경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6·25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한다.

1. 6·25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1) 6·25는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임을 알아야 한다

사무엘하 24장 13절을 보면 기근, 전쟁, 온역 등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6·25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 나라를 가리켜 흔히 종교천국이라고 말한다. 여러 가지의 잡종사니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나라는 우상숭배의 나라라는 말이다. 우리 나라의 민간신앙의 흐름을 보면 세 가지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첫째는 신령이 인간의 고통화복을 지배한다는 생각, 둘째는 사주팔자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생각, 셋째는 풍수지리가 인생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생각이다. 여기서 세 가지의 민족신앙이 나왔다. 먼저 신령이 고통화복을 지배한다는 생각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무당굿이나 부락에서 공동으로 부락제라는 것을 드린다. 이것은 신령의 힘을 빌어 재난을 없애고 복을 받는다는 목적 때문이다.

요즈음 신문, 잡지를 통해서 철학관이란 이름으로 신수 또는 운수를 보게 해준다는 광고를 수없이 볼 수 있다. 사주, 궁합, 판상, 골상, 족상, 수상(손금)을 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애나, 중매나를 알아 맞추고 결혼은 몇 살 때 해야 하며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행복할 것인지 혹은 결혼 못할 사람인지 알아맞춘다는 것이다. 또 젊어서 과부가 될 것이냐, 남편이 바람을 파울 때 어떻게 바람을 잡을 수 있는지, 승진, 이사, 직업, 금전문제, 대학시험 등 운명을 속사원히 판단해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교인들 가운데 이런 데 가는 사람이 적지 않고 심지어 어떤 기도원에 서는 예언기도까지 해주고 돈을 받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절복, 예언으로서 토정비결이라는 책이 있다. 이것은 개인의 고통화복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다. 본래 토정은 16세기 선조때 이지함이라는 사람이 마포 강기슭에 흙담을 쌓아 토실을 만들고 살았다는 데서 나온 호이다. 이것은 해, 달, 일진을 숫자적으로 따져서 상중하의 세 패를 만들어 주역의 음양설을 이용해서 인간의 고통화복을 설명하는 거짓 예언

서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한다. “동풍에 얼음이 풀리니, 마른 나무가 봄을 만나도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곤란한 사람이 차차 힘이 피고 또한 공명을 얻을 때라고 해석한다. 이런 등등의 암시적인 말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셋째는 풍수, 도참사상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정감록이다. 이것은 정감이란 가명을 가진 사람이 쓴 것으로서 지금 여러 개가 전해져 내려온다. 이 책은 풍수지리설을 중심으로 이씨 조선이 망하고 정씨 조선이 새로 일어난다는 일종의 반왕조적 말세론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무속신앙이 우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리스도교인들까지 이런 무속신앙에 영향을 받아 점점 기복신앙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곳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점을 치는 백마술을 하는 예수무당까지 성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8·15의 해방을 은혜로 주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승만 정권을 허락하셨는데 민족복음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정권연장에만 혈안인 것을 아시고 “야 이놈아 정신 좀 차려” 하고 복속에 있는 붉은 몽둥이로 친 것이 바로 6·25란 말이다. 그러므로 6·25는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는 우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인 것이다.

(2)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다

왜냐하면 3개월만에 잃었던 서울을 다시 찾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사실 6·25를 전후해서 일어난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모였을 때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던 소련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만약 이때 소련이 참석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면 유엔군은 참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남한은 완전히 적화되었을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소련은 불참하였고 그래서 유엔군을 보내어 남한의 적화를 막아주신 것이다.

따라서 6·25는 하나님의 집행유예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전멸하지 않았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둘째는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요, 셋째는 남한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며, 넷째는 소동과 교묘성과는 달리 의인 열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3) 6·25의 세번째 의미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의 약속이란 점이다

선교의 역사를 보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 스페인, 영국, 미국을 거쳐 마침내는 우상숭배의 나라인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이다. 그것도 만여명의 순교의 피의 거름위에 세계 제일의 성장을 가져온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 재림 직전에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더구나 한국 교회의 성장사를 보면 6·25이후에 갑작스럽게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

민족에 대한 역사적 뜻이 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 6·25는 민족을 복음화하고 동남아에 복음을 수출하고 세계의 제사장 교회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다.

2. 6·25 44돌을 맞이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

(1) 무엇보다도 먼저 깨달아야 한다

호새아 4장 14절에 “깨달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느니라”고 하였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야 하지만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반계시도 깨달아야 한다. 우이독 경이란 말이 있거니와 역사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새 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것은 슬픈 일이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시외버스 정거장에 가면 큰 돌이 하나 서있고 거기에 기억하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다. 600만이 살해된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라는 교훈이다. 독일도 다카오에 가보면 저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자세하게 보전하고 있다. 다 역사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요즘 민족 문화 전승이란 미명 아래 사마니즘과 무속 등이 안방에까지 침투하고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있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악한 대적 마귀들의 꾀계를 알고, 그 진을 파하여 신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다시금 역사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제2의 6·25와 같은 비극이 이 땅에서 다시금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2) 그러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먼저 과거의 죄를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채찍을 또 맞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2의 6·25가 없기 위해서 우상숭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야 한다. 회개를 통해서만 깨도수정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6·25때의 순교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너무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다시 6·25때 가졌던 그 순교적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셋째로 민족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사명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남북통일의 성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한다. 남북통일의 방법은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과도 같다. 그러므로 먼저 이스라엘이 법궤를 앞세우고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갔듯이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여기서 법궤를 앞세우고 가다는 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가졌던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 시편 146편 3절에 방백이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였고 시편 146편 4절에는 “아홉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25절을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고 했다.

우리는 6·25 44돌을 맞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지난 과거의 죄를 깨닫고 그에게 매달려 기도하는 기회로 삼자. 그리하여 제2의 6·25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복음으로 남북통일의 성업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름다운 얼굴



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답게 보기를 원한다. 특히 여자들은 더욱 그렇다. 그러면 어떤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일까? 재미있는 사실은 보는 사람에 따라 아름다운 표준은 다르다는 점이다. 그래서 외모가 잘 생긴 사람도 결혼하고, 못생긴 사람도 결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이건 인종이나 나라에 상관없이 다 예쁘고 귀엽다. 내 영혼의 아주 작은 잡티조차도 비추어낼 듯이 맑은 눈동자, 그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의 얼굴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더욱이 어떤 육상이나 두려움의 그들은 조금도 없어 정복자를 온 채 평화 그 자체로 잠들어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더욱 예쁘다. 결국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때 오는 것이고, 아름다운 생각을 할 때 오는 것이고, 아름다운 생활을 할 때 오는 것이 아닌가?

글 / 신성종 목사

정경다리

교구별 야외예배를 다녀와서



이 선생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임 성 환

(목사, 2·23교구, 전도위원회·사랑부 지도)

평소부터 예수 믿고 천국가자고 이야기 하면 늘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던 분, 심방을 가도 방에서 나오시지 않으시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방 안에서 훑쳐 보시곤 하시던 분, 어찌다가 만나서 믿음을 권유하면 아직 술 담배를 끊지 못해서 교회는 못 간다는 것이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믿음의 생활을 하시면서 끊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대답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데 어찌 술 담배를 하면서 남에게 시험거리가 되면서 예수를 믿겠느냐 하신다.

그런데 어느날 이 선생님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셨다. 그분을 찾아서 심방을 가보니 이미 간에 암이 완전히 퍼져 있었다. 의학의 진단으로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 퇴원하셔서 집에서 투병중이었다. 너무 힘이 들어 일어나 앉지도 못하시며 심방을 받는다. 성경을 읽고 위로를 하며 천국의 소망을 굳게 가지자고 하였다. 예배를 마치자 인간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것은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고 오직 천국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이었다. 놀라운 말씀이었다.

대부분은 살기 위하여 예수를 선택하고 삶의 마지막 수단으로, 마지막 방법으로 그분을 의지하는데 이분은 달랐다. 심방을 하는 목사에게도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분은 세례를 꼭 받고 싶다고 하셨다. 당회장 목사님께 보고를 하고 병상세례의 허락을 받아 가정에서 병상세례를 베푸던 날 목사인 나는 너무나 감명을 받았다.

누워 계신 머리 말에는 눈이 나쁘신

그 분이 외울 수 있도록 준비된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이 몇 배의 크기로 복사를 하였는지 멀리서도 분명히 볼 수 있을 정도였다. 몇 가지의 세례 문답을 마치고 예배를 드릴 시간이었다. 피골이 상접한 선생님의 몸은 약해질대로 약해져 일어나 앉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일어나 앉으시는 것이다. 그렇다. 그분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후 새벽마다 그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그려져 건강회복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지만 이 선생님은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임종의 순간은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었다. 모든 가족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을 향하여 시신을 던지며 예수님의 손을 붙잡듯 허공을 향하여 손을 흔들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갑니다. 예수님 받아 주세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분명치도 않는 발음이지만 힘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가신 것이다.

불과 몇달 정도의 믿음생활이었지만 이 선생님의 하루 하루는 너무나 확신에 찬 모습이었다. 수십년을 믿음생활 하시던 아내에게는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간증하여 주심으로 아내는 건강을 더욱 회복하게 되었고, 믿지 않는 아들에게도 확실한 믿음 생활을 중용하시고 떠나 가신 것이다.

교구의 직구들도 그 어느때 보다도 많이 참석하여 찬양하며 위로해 주신 장례식이었다. 따뜻한 양지바른 묘역에서 하관예배를 드린 후 나는 한 삼 가득히 흠을 떠서 관에 흠을 덮으며 기도했다. 이 선생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의 불안한 생각을 평화와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신 하나님!

정 정 주

(집사, 제22교구)

94년도 교구별 야외예배는 교회에서 충분한 예산 지원 때문에 모든 교구가 어려움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다.

지난 6월 6일 제22교구에서는 연휴라는 순탄치 못한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평일보다 더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먼길을 다녀오면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마음이 가득할 뿐이다.

우리는 5월 초에 교구야외예배 날짜와 장소를 결정할 때 개인적으로는 쉽게 다녀올 수 없는 곳을 정하므로 야외예배 답

6월의 신록의 멋을 마음껏 향유하며 버스는 경춘가도를 지나 청평댐을 옆으로 지나갔다. 호수위의 모터보트의 풍경이 우리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도착 예정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고 보니 역시 산과 물과 모래사장과 숲이 잘 어우러진 곳으로 경탄이 절로 나왔다.

식사 후 간단하게 놀이와 여흥과 자연 경관을 구경하고 귀경차량의 혼잡을 생각하여 돌아갈 길을 서둘렀다. 즐거운 놀이를 즐기는 동안 마치 집을 떠나온지 며칠이라도 되는 양 정리하는 마음들이 바빠지



게 가질 것을 결정했다. 그러기에 적당히 그날을 땀 흘려서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고생과 수고가 배나 더할지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전 교구 성도들의 마음도 심령도 대자연 속에서 마음껏 어우러져 큰 기쁨을 얻고 참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상의 대전환을 시도하게 되었다.

기 시작한다.

인원점검을 하고 정확히 4시에 출발하며 생각하기를 귀가할 때까지는 늘어지게 잠을 자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모두가 하면서 명절 귀향길과도 같은 대단한 각오를 우리 모두가 하였다.

청평까지는 웬일인지 우리를 위한 준비였으리라 생각될 정도로 조금도 막힘이 없이 올 수 있었다. 청평댐을 건너서니 도로에 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여기서부터 전쟁이로구나 하는 마음에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날은 교통순경이 청평으로 가는 일방통행을 막고 서울로 들어가는 차는 계속 진입토록 하고 있어 쉽게 빠져나와 서울에 도착하니 오후 6시가 조금 지났다.

평소보다 더 빠르다는 모두의 말이다.

모든 문제는 10명의 정탐꾼보다 2명의 정탐꾼의 믿음의 역사가 중요하듯이 믿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갈 때 그 앞에 장애물은 우리의 함이라는 확고한 믿음의 역사를 다시금 체험하는 유익한 94년의 제22교구 야외예배였다.

어머니

최 순 애
(충현교회대학)

이삭모친 사라는
아브라함 아내라
하나님 경음으로
만득자 얻었다네
야곱모친 레브가
브두엘의 딸이라

죽장을 계승하네
그이름 이스라엘
요셉모친 라헬은
패색을 검비했네
애굽제왕 낳으니
히브리족 뱃나래

모세의 어머니는
레웨여인 요게벳
제도자를 낳으니
그네이름 뱃나래
사무엘모친 한나
기도의 여인이라
대산지자 낳으니
뱃음의 사표알세
예수모친 마리아
동정녀 생결한 몸
구세주 낳았으니

영광일세 그이름
세례요한 어머니
그이름 엘리사벳
광야의 소리있어
선구자 낳았다네

디모데 어머니는
말씀좋은 유니게
전도자 길러내고
생도의 분이 되네

효율적인 상조 업무를 위해 상조회 운영 설명회

상조회에서는 3월부터 5월까지의 상조회 업무를 정리하여 발표하며 교역자들과 함께 효율적인 상조업무 협조를 위한 설명회를 지난 6월 9일 오전 9시 30분 국제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상조회 회장 김여순 장로가 지난 분기 동안의 상조회 업무를 설명하고 교역자들과 상조회원 간에 알아야 하고 협조해야 할 사항들을 발표하며 서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나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진행(상례집행)은 교역자가 주관하고 상조회원은 실무협력을 하며 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한다.

· 각 교구에서는 예전책임자를 반드시 선정하여 빈소설치 문제, 장례식 후 병풍, 조등 반환 등의 문제를 교역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기로 한다.

· 장례식을 병원에서 하는 가정도 수의와 운구차는 상조회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 각 교구는 극빈자 상가를 파악하여 상조회에서 이를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상기 건 외에도 상가 및 상례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했고 특히 상조회에서는 지난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장례 및 이장 건수가 27건이며 이에 따른 경비(수입과 지출)를 발표 하기도 했다.

6·25체험담을 모집합니다.

6·25를 겪은지 만 44년을 맞이 하면서 6·25에 대한 체험담을 모집합니다. 원고지 10매 정도로 자유롭게 적으셔서 <주간충현 편집실>로 보내주세요. (전화 552-8200, 교348, 349)

다함께 기도합시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 김창인목사 : 14일(화) 수도권회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강습회 설교
16일(목) 경로대학 종강예배 설교
· 신성종목사 : 13일(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연합신학대학 주최 목회지도자과정 계속연구세미나 특강
15일(수) 수도권회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강습회 설교
2. 충현의 모든 교회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므로 자라나는 세대가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되어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3. 죄악으로 가득찬 이 땅을 사하시사 이 민족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복한의 전쟁도발을 막아주시며 현재의 위기의식을 갖고 회개운동이 전국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4.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전도를 하게 하시사 교구마다 구역마다 부흥되게 하시며, 기도로 준비하여 태신자를 많이 갖게 하옵소서.
5. 인도네시아의 서만수 선교사의 회교국에서 복음전도와 수마트라, 리아우도 섬의 개척교회의 부흥 성장과 이리안자아의 원주민 사역에 성령이 강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여러분께 늦게야 편지를 드려게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수리남으로 되돌아갈 날이 한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의 미국생활은 한 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수리남에서 더위와 싸우던 저희가 이번 겨울 동안에 닥쳐 온 15번의 폭풍 속에서도 추위와 고생을 잊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족소식

2년 반만에 온 식구가 함께 아파트를 얻어 따로 생활하면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소영이는 8학년으로 North Penn Junior High School에 다니고 있고, 위영이는 7학년으로 Penn Brook Middle School에 다니며, 막내 요한이는 2학년으로 Gwyn-Nor Elementary School에서 영어를 배우는 ESL과정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모두 건강하며 공부도 잘 따라가며 함께 있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주 화, 수, 목, 금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씩 영어를 배우러 다니고 있고, 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씩 화란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금요일까지 1주일에 3일 공부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화란어 선생은 (Cornee van der Linden(코니))로 미국인 여자와 결혼한 외국인학원 선생입니다. 미국에서 애학을 배우려면 굉장히 비싼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2시간에 \$30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감사교신자로서 제가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수리남소식

저희들이 수리남을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한번도 수리남을 떠난 적이 없으며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수리남에 속히 돌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희들을 대신해서 김창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아들 준영이 가

죽을 위해 더욱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나와 있는 동안 김 목사님 가족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성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선교하도록 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선교하고

통의 학교에서 미사에 참석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다른 종교에 대한 교육을 받으므로 저들은 온전히 기독교 신앙으로 인도하는데 더욱 힘이 듭니다.

특별히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은 천주교를 다니는 흑인들의 지역으로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자 여러 면에서 박해를 했으며 지금은 교회와 한 건물들 사이에 두고 성당을 세워놓고 교회를 못나오도록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릴 때부터 학교를 나오도록 하여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또 앞으로 협력할 선교사들이 정해지면 각 종파별로 복음을 전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글에 사는 인디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수리남 선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선교편지를 정기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연락처

Rev. CHANG SOO. KIM(김창수-목사)
&
Rev. SEOK RYEO L. AHN(안석열 선교사)
P.O BOX 8222 (Kalkoesi str. No. 3 Geyers/hjt)
PARAMARIBO, SURINAME
South America. Tel: 597-45-2816

언제나 수리남을 잊지 않고서도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994년 5월 9일 안석열 이성옥 등

◆ 안석열 선교사는 지난 6월 8일 귀국하여 현재 교회 양권관 505호에 묵고 있다. 6월 20일 출국 예정이다.

● 수리남 / 안석열 선교사 ●

많은 제약이 있는 나라들에 비하면 황금어장인 수리남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 복음의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고 헌신하십시오.

다.

또 함께 수고하는 헨드릭(Hendrik)과 리타(Rita) 부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수리남을 떠나오기 전에 앞으로의 수리남 선교를 위해 선교법인을 신청하였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법안등록이 속해 나오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리남에 대해서는 김창수 목사님을 통해 듣고 계실 줄 압니다만 저희들은 보내오는 신문을 통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리남의 상황이 저희들이 떠나 올 때보다 더 악화되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름도 배급표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수고하시는 김창수 목사님께 감사에 더욱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수리남선교의 중요성

수리남은 위치상 남미에 있지만 주로 천주교를 믿는 흑인들과 함께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들, 이슬람교를 믿는 인도네시아인들과 기독교를 믿는 여러 종류의 인종들이 섞여 사는 동양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와 자원이 있어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특별히 한국사람들은 무비자로 수리남을 여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

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선교하도록 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선교하고

또 수리남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이름난(?) 선교지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기를 갈급하고 있는 수리남에 많은 협력선교사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때가 속히 오도록 말입니다.

죽어가는 모슬렘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가 원하시는 선교사님이나, 복음전파의 단련된 분이 속히 엘리도록 기도하는 분들은 열려진 수리남에서 죽어가는 모슬렘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바울이 자신을 향해 손뼉하던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았듯이 여러분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수리남인의 손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역계획

저희들은 7월 초순에 수리남으로 돌아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리남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착수하려는 사역은 유치원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각 종교마다 학교를 짓고 학교를 통해 포교하는 것이 너무나 강해, 많은 학생들이 천주교